

국가회계 재정통계

ISSN 2635-7119

2024년 봄호
Vol. 38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동향
「국가회계법」 개정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재정통계 동향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회계 동향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CONTENTS

2024년 봄호

Vol. 38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정통계

VOL. 38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4년 봄호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양은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연구TFT팀장(회계연구 총괄)
전화 044-414-2561(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4년 3월 31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국가회계 동향

- 04 「국가회계법」 개정
- 05 2024년 IPSASB 연간계획 및 1분기 정례회의 안건 소개
- 21 해외 국가결산보고서 발간 현황
- 26 해외 재무결산 동향(미국)
- 32 제24차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참석 결과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38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41 2024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재정통계 동향

- 50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 회계 동향

- 58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 61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일정 및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
- 64 2023년 세법개정 후속 공익법인 관련 시행령 개정안

세미나

- 68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학회 공동 세미나 결과 보고

오피니언

- 7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개화(開花)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공지사항

- 81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토계





국가회계 동향

////////////////

- 「국가회계법」 개정
- 2024년 IPSASB 연간계획 및 1분기 정례회의 안건 소개
- 해외 국가결산보고서 발간 현황
- 해외 재무결산 동향(미국)
- 제24차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참석 결과

01 「국가회계법」 개정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흐름표 항목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신설하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4년 3월 26일 공포되었다. 아래와 같이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에 현금흐름표가 추가되며,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현금흐름표의 작성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4. 3. 26.〉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25. 1. 1.] 제14조

현금흐름표의 도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2년 12월 16일 발표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 중 하나로, 국가 현금흐름을 운영·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재정활동별로 현금조달원천과 집행 결과를 파악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은 현금흐름표의 도입을 포함하여 재정상태표 분류체계 개편 및 간소화, 재정운영표 개편, 주석체계 개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가회계법령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 또한 2024년 내 개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02 2024년 IPSASB 연간계획 및 1분기 정례회의 안건 소개



가. 2024년 IPSASB 연간계획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PSASB)의 정례회의는 매년 4회 개최된다. 2024년 첫 번째 정례회의는 뉴욕에서 3월 12일에서 15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후 두 번째 정례회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며, 6월 24일에 있을 CAG(자문 위원회)에 이어 6월 25일에서 6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유럽 위원회가 주최하는 세 번째 정례회의는 9월 17일에서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네 번째 정례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에서 주최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2월 9일에 열리는 CAG(자문위원회)에 이어 12월 10일에서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에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IPSASB SRG(Sustainability Reference Group) 회의가 지난 2024년 1월 31일에 열린 데 이어, 이후 5월 8일, 7월 31일, 10월 3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은 앞으로 진행될 2024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상도이다.

프로젝트	2024				2025			
	3월	6월 (CAG)	9월	12월 (CAG)	3월	6월 (CAG)	9월	12월 (CAG)
기준제정 관련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	DI/ED	DI/ED	ED	RR/DI	RR/DI	RR/DI	IP	
측정-적용단계	DI/ED	ED		RR/IP	IP			
기타 리스유사약정								
리스: IPSAS 43 개정	DI	IP						
리스: IPSAS 47, 48 개정	ED	RR/IP						
천연자원	DI/ED	ED		RR	RR/IP	RR/IP	IP	
천연자원-IFRS 6 및 IFRIC 20 대응		RR	RR/IP					
재무제표의 표시	DI/CP	DI/CP	DI/CP	DI/CP	DI/CP	CP		RR
개선사항 (Improvements)	IP	ED		RR/IP	ED		IP	
IPSAS 33-제한적 범위 업데이트	DI/ED	ED		RR	RR/IP	IP		
IFRIC 대응-제한적 범위 개정	ED		RR/IP	IP				
기타프로젝트 및 계획								
전략 및 업무 프로그램 2024~2028		RR/DI	SWP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개발 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의 일반요건 ② 천연자원-비재무정보공시	RS							
IPSASB Handbook		발간				발간		

* DI: 이슈 논의, RR: 응답 검토, CAG: 자문위원회, CP: 자문보고서 승인, ED: 공개초안 승인, IP: 기준서 승인, SWP: 전략 및 업무 프로그램 승인, RS: 프로젝트 기초조사 및 활동범위 지정

다음은 최근(2019~2023년)에 완료된 프로젝트와 해당 프로젝트의 적용 예정일이다.

프로젝트	완료일	적용일
IPSAS 49, 퇴직급여제도	2023년 11월	2026년 1월 1일
개념체계 업데이트-3장, 질적 특성	2023년 10월	해당없음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실무해설1~3 개정	2023년 5월	해당없음
IPSAS 48, 이전비용	2023년 5월	2026년 1월 1일
IPSAS 47, 수익	2023년 5월	2026년 1월 1일
IPSAS 46, 측정	2023년 5월	2025년 1월 1일
IPSAS 45, 유형자산	2023년 5월	2025년 1월 1일
개념체계 업데이트-5장, 재무제표 요소	2023년 5월	해당없음
개념체계 업데이트-7장, 자산/부채 측정	2023년 5월	해당없음
IPSAS 44,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2022년 5월	2025년 1월 1일
IPSAS 43, 리스	2022년 1월	2025년 1월 1일
2021년 IPSAS 개선사항	2022년 1월	2023년 1월 1일
IPSAS 5, 차입원가 자본화	2021년 11월	해당없음
IPSAS 41, 금융상품	2020년 12월	2023년 1월 1일
COVID-19 적용일 연기	2020년 11월	2023년 1월 1일
IPSAS 19, 집합적·개별적 서비스	2020년 1월	2023년 1월 1일
2019년 IPSAS 개선사항	2020년 1월	2022년 1월 1일
IPSAS 42, 사회보장급여	2019년 1월	2022년 1월 1일
IPSAS 36,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PSAS 41, 금융상품	2019년 1월	2022년 1월 1일

나. 2024년 1분기 IPSASB 정례회의 안건 소개

2024년 1분기 IPSASB 정례회의가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IPSASB는 3월 회의에서 IPSAS 개선 과제 중 ‘리스(lease)’,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측정(measurement)’,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 - related disclosures)’,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와 관련된 최신 쟁점을 다루었다. 또한 공익위원회(PIC)¹⁾ 공동위원장인 Jon Blondal의 발표가 있었다. 아래는 주요 안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프로젝트	안건
리스	안건 6: 기타 리스유사약정(Other Lease-type Arrangements)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약정
천연자원	안건 7: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측정	안건 9: 측정-적용단계(Measurement-Application Phase)
지속가능성	안건 10: 지속가능성-기후 관련 공시 (Sustainability-Climate Related Disclosures)
재무제표 표시	안건 12: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psasb.org/meetings/ipsasb-meeting-39>

1) 기타 리스유사약정(Other Lease-type Arrangements)

● 목적 및 배경

- (목적) 리스유사약정과 관련된 회계처리 이슈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추가 지침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 (배경) 기타 리스유사약정 프로젝트는 공개초안(Exposure Draft, 이하 ED) 84와 ED 88에 대한 개발 및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ED 84는 IPSAS 43과 IPSAS 23에 대한 개정사항이며, 주제는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이다.
 - ED 88은 IPSAS 47과 IPSAS 48에 대한 개정사항이며, 주제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약정이다.

1) PIC(공익위원회): Public Interest Committee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2				2023				2024			
	1	2	3	4	1	2	3	4	1	2	3	4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6.2.1	<p>[프로젝트 마무리 개요] ED 84 및 ED 88의 결과를 2024년 6월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발표문에 반영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p> <p>ED 88의 발행과 ED 84 지침 제안이 함께 최종본에 통합되어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최종본의 제목, 구조,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p>
6.2.2	<p>[ED 88 초안: 개발] ED 88의 개발을 위해 다음사항에 대해 논의함</p> <p>(1) ED 88의 초안 제목</p> <p>(2) 할인리스의 양도에 대한 IPSAS 47의 회계처리 지침 신설(SMC 1),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약정에 대한 IPSAS 47과 48의 실무지침 신설(SMC 2)</p> <p>(3) IPSAS 47, 48의 개정 제안</p> <p>(4) 결론 도출 근거</p>
6.2.3	<p>[ED 88 초안: 승인] ED 88의 승인 이후, 두 달간 ED 88에 대한 의견을 수집할 예정이며, 2024년 6월 정례회의에서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를 다룰 예정임</p>
6.2.4	<p>[ED 84의 해결 못한 이슈] 할인리스에서 시장이자율(market rates)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다음의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자율로 리스료를 식별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수준”에 대한 내용은 추가하지 않음 -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음”을 “실행 불가능함”으로 개정하지 않음 - “시장이자율을 적용한 리스료”를 “리스이용자가 할인 없이 지급해야 하는 지급액”으로 개정하지 않음 <p>[1안] 할인리스를 통해 사용권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비용은 <u>리스이용자가 리스에 대한 할인 없이 지급해야 하는 지급액의 현재가치로</u> 측정된다.</p> <p>[2안] 할인리스를 통해 사용권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비용은 <u>시장이자율을 적용한 리스료의 현재가치로</u> 측정된다.</p>



2)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목적

- 천연자원 프로젝트의 목적은 천연자원에 대한 인식과 측정 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함이다.

● 진행 경과

- 지난 2020년 3월에 제안된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현재 공개초안을 개발하기 위한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프로젝트 단계	2022				2023				2024			
	1	2	3	4	1	2	3	4	1	2	3	4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7.2.1	<p>[천연자원 공개초안의 적용범위 개정]</p> <p>천연자원 공개초안의 적용범위에서 다음의 항목들을 제외할 것을 논의</p> <p>(1) IPSAS 12, '재고자산'</p> <p>(2) IPSAS 16, '투자부동산'</p> <p>(3)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해당하는 천연자원 관련 부채</p> <p>(4) 농업 활동과 관련된 생산물(IPSAS 27, 농업 참조)</p>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7.2.1	<p>(5) IPSAS 31, '무형자산'</p> <p>(6) IPSAS 43, '리스'</p> <p>(7) IPSAS 44,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천연자원</p> <p>(8) IPSAS 45, '유형자산'</p> <p>(9) [초안] IPSAS [X] (ED 8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p>
7.2.2	<p>[보존(Conservation)의 정의]</p> <p>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주식사항을 위해 보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대두,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논의</p> <p>"인간 활동으로 인한 천연자원의 훼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행위"</p>
7.2.3	<p>[천연자원의 측정 표시 방법에 대한 논의]</p> <p>천연자원 공개초안의 본문에 IPSAS 46, '측정'에서 참조해야 할 부분 논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 측정 2. 후속 측정 3. 현재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천연자원 보존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현재가치는 현행운영가치로 측정함을 적용지침에 수록, 현행운영가치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실무해설과 적용사례에 수록
7.2.4	<p>[후속측정 개정]</p> <p>2023년 12월 회의에서 천연자원을 현재가치로 후속측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p> <p>현재가치는 일반적으로 목적적합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 그러나 보존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경우 역사적 원가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것임. 그러므로 후속측정의 경우 IPSAS 45 유형자산을 따르는 방법을 재고려</p>



3) 측정-적용단계(Measurement-Application Phase)

● 목적

- 측정-적용단계 프로젝트는 '측정' 프로젝트의 이전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IPSAS의 현행운영가치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 진행 경과

- 현재 공개초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2024년 6월에 공개초안이 승인되면 이후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예정이다.

프로젝트 단계	2022				2023				2024			
	1	2	3	4	1	2	3	4	1	2	3	4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9.2.1	[IPSAS 12, 재고자산] IPSASB는 운영(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취득원가와 현행대체원가 중 가격이 낮은 쪽을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는 저가법을 사용 중임. 이때, 현행대체원가를 현행운영가치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논의 - 농산물 재고자산의 경우 의도치 않은 평가절하가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안건은 프로젝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9.2.2	[현행운영가치 측정 문구 개정] 현행운영가치를 측정할 때 다음과 같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논의 “현행운영가치는 측정일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자산의 남아 있는 서비스 잠재력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고유의 금액이다.”
9.2.3	[IPSAS 31, 무형자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현재가치 측정에 현행운영가치 적용 가능성 논의 (1) 비교환거래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 (2) 공공서비스 제공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에 따라 현행가치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후속측정
9.2.4	[현행가치 측정 주석사항 개정] IPSAS 12, 재고자산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포함한 IPSAS 기준서 전반에 걸친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현행가치 측정 공시수준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 - 일관성을 위해 '반복적(일정주기)'과 '비반복적'이라는 용어가 특정 IPSAS 기준서에서 삭제되어야 함 - 비반복적인 현행운영가치 측정 공시사항에 대한 내용이 IPSAS 12, 재고자산에 추가되어야 함



4) 지속가능성-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Climates Related Disclosures)

● 목적

-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보고 실체가 적용할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2				2023				2024			
	1	2	3	4	1	2	3	4	1	2	3	4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p>[프로젝트 진행사항 공유]</p> <p>2023년 12월 정례회의 이후에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 활동과 논의 사항을 공유</p> <p>2024년 1월 31일에 열린 SRG(Sustainability Reference Group) 회의와 2월 13일에 열린 기후 주제 작업반의 회의를 통해 여러 논의를 진행함</p>
10.2.1	<p>- 기후 관련 영향의 정의를 기후별로 구체화하고 공공부문의 범위와 적용을 반영 (안건 10.2.2)</p> <p>- 기후 변화 관련 정책 설정 및 규제 역할에 대해 민간부문 지침을 적용하는 방법 (안건 10.2.3)</p> <p>- 지배구조, 전략, 영향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적용 필요성 (안건 10.2.4, 10.2.5, 10.2.6)</p>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프로젝트 목적 및 접근법]

장기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공공부문에서 기후 관련 공시의 일관성을 촉진하여 투명성과 회계책임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로 제한하려는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지원”

기후 관련 공시 기준에 적용할 접근법으로서, 변화이론을 제시

10.2.2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은 특정 상황에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여섯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장기 목표 식별
2.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과 요구사항을 역방향으로 매핑하여 연결하고, 전제조건 of 필요성과 충분성 설명
3. 상황에 대한 기본 가정 확인
4.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 찾기
5.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6. 논리구조 개발

출처: 변화이론 홈페이지, <https://www.theoryofchange.org/what-is-theory-of-change/>

[공공부문 정책 활동]

민간부문 지침은 기업 자체 운영과 관련된 공공부문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함. 따라서 초안 ED는 공공부문에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여 민간부문 지침과 일치시키려 함

10.2.3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할 때 민간부문과의 차이점은 공공부문의 정책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며, 정책 활동과 관련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함

- 정책이란 법률, 규정, 지침, 기준, 절차, 프로그램, 보조금, 각용 비용, 세금 및 공공 소유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정책 개입
- 기후 관련 영향이란 기후 변화 정책의 결과로 기업의 정책 활동이 경제, 환경 및 사람에게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

[지배구조]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정보이용자를 위해 다음의 정보를 추가할 것

10.2.4

- 공공부문의 목표뿐만 아니라 국가의 목표와 계획을 지원하고 국제적 협약에 기여하는 데 있어 지배구조의 역할
- 정책 활동 현황, 정책의 구현 및 효율성 모니터링(그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가 정책 활동을 감시하는 방법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결산담당자들을 위해 다음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할 것

- 정책 사업 감독 및 관리가 공유되거나 특정 수준의 정부가 더 높은 수준의 정부 또는 부처에 종속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지배구조에 따라 원칙이 적용되는 방법

[전략]

전략과 관련하여 정보이용자를 위해 다음의 정보를 추가할 것

10.2.5

- 자체 운영 및 관련 정책 활동 수행을 위한 공공부문의 전략이 관련 국가 목표 및 계획을 포함한 국제적 협약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기여하는지
- 전략에 의해서 공공부문 특정 위험(예: 정책조정 및 전달위험)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 정책 활동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설정되고 모니터링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체 운영 전략과 어느 정도로 통합이 되는지(예: 해당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구현을 위한 관련 자원 할당 계획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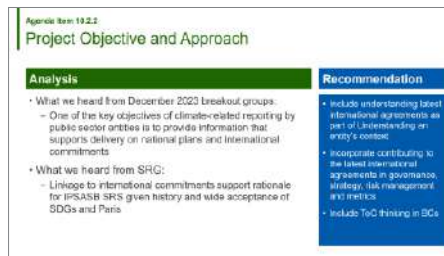
- 전략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결산담당자들을 위해 다음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할 것
- 국가 목표 및 계획을 포함한 국제적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위험, 정책 불이행 위험 또는 정부 변화 등 기타 관리 불가능한 위험 관리 등 공공부문 특유의 위험관리 고려사항을 명확히 제공
 - 정책 활동과 관련된 영향 및 위험 관리가 어떻게 다른 공공부문 기관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 운영 프로세스와 통합되거나 분리되는지에 대한 지침 제공

[위험 관리]

일반적으로 위험관리체계와 방법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동일하게 적용됨. 하지만 직면한 위험과 위험완화 전략에 차이가 발생

10.2.6

-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정보이용자를 위해 다음의 정보를 추가할 것
- 사람, 경제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활동 및 접근 방식
-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결산담당자들을 위해 다음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할 것
- 관련 국가 목표 및 계획, 국제적 약속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정책 불이행 위험, 정부 변화, 기타 관리 불가능한 위험관리 등 공공부문별 위험관리 고려사항
 - 정책 활동과 관련된 영향 및 위험 관리가 어떻게 다른 공공부문 기관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 운영 프로세스와 통합되거나 분리되는지에 대한 지침



5)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목적 및 배경

- (목적)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는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IPSAS 기준서를 개발하여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보고된 재무정보의 의사소통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 (배경) 지난 2023년 9월 IPSASB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프로젝트 개요를 승인한 이후, 현재는 자문보고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2				2023				2024			
	1	2	3	4	1	2	3	4	1	2	3	4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p>[프로젝트 진행사항 공유]</p> <p>과제 제안(Project Brief)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공개초안 예문(illustrative ED)을 포함하는 자문보고서 개발하는 것임</p> <p>이 접근방식은 IPSASB가 관련 국제기준 제정(예를 들어, IASB가 4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 및 공시)을 고려하면서 공공부문 보고 문제를 적절하게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됨</p> <p>공개초안 예문은 IPSASB가 자문보고서의 중점 부분을 기반으로 원칙과 개념을 명료화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임</p>
12.2.1	<p>2024년 2분기 초에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될 예정이며 IPSASB 의장이 이를 이끌게 됨. 태스크포스는 2024년 2분기에 최대 2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자문보고서 및 공개초안 예문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할 것임</p> <p>자문보고서 및 공개초안 예문 개발의 시작으로, IPSASB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표시 요구사항에 관한 제안에 대해 논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안건 12.2.2) - 추가 비교정보(안건12.2.3) - 차감표시 - 공정한 표시 및 IPSAS 준수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12.2.2	<p>[일반적인 표시 요구사항-정의] 현행 IPSAS 1 '재무제표 표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가 IPSASB 개념 체계의 관련 정의들과 일치하는지 검증 IPSASB 개념체계에 의해 정의된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업데이트(아래 참고)</p>
12.2.3	<p>[일반적인 표시 요구사항-추가 비교정보]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개발 여부 논의 - IPSAS는 특정 상황에서 최소한의 비교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전기 기초를 기준으로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추가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IASB 요구사항을 아직 채택하지 않음 - 소급 수정으로 인해 기업의 기초 순자산이 중요하게 재작성되는 경우 추가적인 비교 정보를 통해 투명성이 향상됨 - 공공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고려</p>
12.2.4	<p>[일반적인 표시 요구사항-차감표시]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에서 차감표시와 관련된 요구사항 수행 논의 - 현행 IPSAS 1 요구사항에서 업데이트될 필요성이 없어 보임</p>
12.2.5	<p>[일반적인 표시 요구사항-공정한 표시 및 IPSAS 준수]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에서 공정한 표시 및 IPSAS 준수와 관련된 요구사항 수행 논의 - 현행 IPSAS 1 요구사항에서 업데이트될 필요성이 없어 보임</p>

참고 안건 12.2.2에서 논의된 개정안

현행(IPSAS 1)	개정안
<p>Assets are resources controlled by an entity as a result of past events and from which future economic benefits or service potential are expected to flow to the entity.</p> <p>자산: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실체가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나 용역잠재력이 실체에 유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이다.</p>	<p>An asset is a resource presently controlled by the entity as a result of past events</p> <p>자산: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실체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자원이다.</p>
<p>Liabilities are present obligations of the entity arising from past events, the settlement of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n outflow from the entity of resources embodying economic benefits or service potential.</p> <p>부채: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나 용역잠재력을 갖는 자원이 실체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p>	<p>A Liability is a present obligation of the entity to transfer resource</p> <p>부채: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실체의 현재 의무</p>

참고 의 계속

현행(IPSAS 1)	개정안
<p>〈신설〉</p>	<p>A resource is a right to either service potential or the capability to generate economic benefits, or a right to both.</p> <p>자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능력이나 용역 잠재력에 대한 권리 또는 둘 다에 대한 권리</p>
<p>Revenue is the gross inflow of economic benefits or service potential during the reporting period when those inflows result in an increase in net assets/equity, other than increases relating to contributions from owners.</p> <p>수익: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p>	<p>Revenue is increases in the net assets/ equity position of the entity, other than increases arising from ownership contributions</p> <p>수익: 실체의 순자산의 증가로서, 소유권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p>
<p>Expenses are decreases in economic benefits or service potential during the reporting period in the form of outflows or consumption of assets or incurrences of liabilities that result in decreases in net assets/equity,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distributions to owners.</p> <p>비용: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보고기간 동안의 경제적 효익이나 용역잠재력의 감소로서, 소유주 배분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p>	<p>Expense is decreases in the net assets/ equity position of the entity, other than decreases arising from ownership distributions.</p> <p>비용: 실체의 순자산의 감소로서, 소유권 배분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p>
<p>Net assets/equity is the residual interest in the assets of the entity after deducting all its liabilities.</p> <p>순자산: 실체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말한다.</p>	<p>Net assets/equity is the residual measure of total assets minus total liabilities, as reported in the entity'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p> <p>순자산: 실체의 재정상태표에 보고되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말한다.</p>
<p>Contributions from owners means future economic benefits or service potential that has been contributed to the entity by parties external to the entity, other than those that result in liabilities of the entity, that establish a financial interest in the net assets/equity of the entity, which:</p>	<p>Ownership contributions are inflows of resources to an entity, contributed by external parties in their capacity as owners, which establish or increase an interest in the net assets/equity of the entity.</p>

참고 의 계속

현행(IPSAS 1)	개정안
<p>(a) Conveys entitlement both to (i) distributions of future economic benefits or service potential by the entity during its life, such distributions being at the discretion of the owners or their representatives, and to (ii) distributions of any excess of assets over liabilities in the event of the entity being wound up; and/or</p> <p>(b) Can be sold, exchanged, transferred, or redeemed.</p> <p>소유주 출연: 실체의 외부 당사자가 실체에 기여한 미래 경제적 효익이나 용역 잠재력으로서 실체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지분을 구성하는 것(실체의 부채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을 의미한다. 소유주 출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p> <p>(1) 소유주 출연은 (i) 소유주 또는 그 대리인의 재량에 따른 분배금과 같이 실체의 존속기간에 걸쳐 미래 경제적 효익이나 용역 잠재력에 대해 분배금을 받을 권리와 (ii) 실체가 청산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 금액에 대해 분배금을 받을 권리를 모두 부여한다.</p> <p>(2) 판매, 교환, 양도 또는 상환될 수 있다.</p> <p>Distributions to owners means future economic benefits or service potential distributed by the entity to all or some of its owners, either as a return on investment or as a return of investment.</p> <p>소유주 배분: 실체가 투자수익 또는 투자금의 반환으로서 실체 소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분배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나 용역 잠재력을 말한다.</p>	<p>소유권 출연: 실체의 외부 당사자가 소유자로서의 자격으로 기여한 자원의 유입으로, 해당 실체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설정하거나 증가시킨다.</p> <p>Ownership distributions are outflows of resources from the entity, distributed to external parties in their capacity as owners, which return or reduce an interest in the net assets/equity of the entity.</p> <p>소유권 배분: 실체의 외부 당사자가 소유자로서의 자격으로 분배한 자원의 유출로, 해당 실체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반환하거나 감소시킨다.</p>



Agenda Item 12.2.3 Additional Comparative Information	
Analysis	Recomme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 has not yet adopted the IASB requirement to present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t the beginning of the earliest comparative period, in specific circumstances. The additional comparative information provides for increased transparency when retrospective statements result in a material restatement of the opening equity position of an entity. Staff consider the additional disclosures are equally applicable to the public sector and see no reason not to bring them into IPSASB as part of this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 propose in the new IPSASB to replace IPSAS 1 requirements to present additional comparative information aligned with IAS 1 (and draft 12).

6) 공익위원회 지배구조 보고

IPSASB의 감독기관으로서 IMF, OECD,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최고 감사기구(INTOSAI)의 위원들로 구성된 공익위원회는 1년에 한 차례 공식적인 회의를 가지며, 올해는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공익위원회는 아래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감시활동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엄격한 적법절차

위원회는 엄격한 적법절차에 따라 IPSASB가 채택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검토하였다. 이는 위원회와 IPSASB 사이에 합의된 상세한 IPSASB 적법절차 및 업무절차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되었다.

적격하고 다양성을 고려한 임명절차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원장을 선출할 때 적격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였다. IPSASB에 대한 임명은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개별 임명에 대한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역할은 임명 절차가 공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는 IPSASB에 부합하는 적격성과 성별, 지리 및 회계 배경을 포함한 모든 차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임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기준의 목적적합성과 적시성

공익위원회는 목적적합하고 시의적절한 기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임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 위원회는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이슈와 같은 최신 주제에 대해서도 집중하도록 장려하였다.

03 해외 국가결산보고서 발간 현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해외 주요 국가의 재무보고서에 대해 발간 현황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을 설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일본 등 비영어권 국가의 재무보고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해외 주요국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발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국의 경우 포괄범위가 넓어 2023년 7월에 202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발간된 바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발간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분	발간일	회계기간	보고서명
미국	2024. 2. 15.	2022. 10. 1. ~ 2023. 9. 30.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23
호주	2023. 12. 8.	2022. 7. 1. ~ 2023. 6. 3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3
뉴질랜드	2023. 10. 5.	2022. 7. 1. ~ 2023. 6. 30.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3
캐나다	2023. 10. 24.	2022. 4. 1. ~ 2023. 3. 31.	Public Accounts of Canada 2023
영국	2023. 7. 20.	2020. 4. 1. ~ 2021. 3. 31.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1

가.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

2023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가 2024년 2월 15일 발표되었다. 미국의 2023회계연도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며, 원문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23*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current-report.html>



연방 결산보고서 표지



장관 메시지



감사원장 성명서

나. 호주 영연방 재무보고서

호주의 2023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가 2023년 12월 8일 발표되었다. 호주의 2023 회계연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원문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3*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inance.gov.au/publications/commonwealth-consolidated-financial-statements/>



결산보고서 표지



재무부 장관 메시지



감사원장 성명서

다. 뉴질랜드 정부 재무보고서

2023회계연도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가 2023년 10월 5일 발표되었다. 뉴질랜드의 2023회계연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원문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3*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treasury.govt.nz/government/financialstatements>



결산보고서 표지



재무부 장관 메시지



감사원장 성명서

라. 캐나다 정부 재무보고서

캐나다의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서가 2023년 10월 24일 발표되었다. 캐나다의 2023회계연도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원문 *Public Accounts of Canada 2023*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psgc-pwgsc.gc.ca/recgen/cpc-pac/index-eng.html>



결산보고서 표지

회계책임보고서

독립된 감사보고서



마. 영국 공공부문 통합 재무보고서

2021회계연도 영국 공공부문 통합결산서가 2023년 7월 20일 발표되었다. 영국의 2021회계연도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이며, 원문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1*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



결산보고서 표지

회계책임보고서

감사원장 성명서



04 해외 재무결산 동향(미국)

본 재무결산 동향은 2024년 2월에 발간된 미국 연방정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요약한 것으로 원문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23*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current-report.html>

센터에서는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국 결산서 발간과 맞춰 재무결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약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 결산서의 구성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는 재무부 장관 메시지, 결산개요(Executive Summary), 경영진단의견서(MD&A), 미국 감사원의 성명서,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총 7종으로 순원가표, 운영 및 순자산변동표, 순운영원가 및 예산적자 조정표, 예산 및 기타활동으로 인한 현금변동표, 재정상태표, 장기재정전망표,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금액변동표로 구성되며 관련 주석으로 총 30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필수보충정보(미감사)와 기타정보(미감사)를 추가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연방 결산보고서



장관 메시지



감사원장 성명서

나. 결산 요약

1) 자산 및 부채

2023회계연도 현재 미국 정부의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 5조 4천억달러, 42조 9천억 달러이며, 일치하지 않는 거래 및 잔액²⁾(2023회계연도의 경우 0달러)을 차감한 후의 순자산은 37조 5천억달러 적자이다. 참고로 미국의 2022년도 GDP는 약 25조 4천억³⁾달러이다.

연방정부의 자산 5조 4천억달러 중 75% 이상은 ① 현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9,222억 달러), ② 순 대여금(1조 7천억달러), ③ 순 유형고정자산(1조 2천억달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은 대부분 미국 정부의 운영현금으로 구성된다. 2023회계연도 중에 444억달러(5.1%)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개 재무부가 보유한 운영 현금의 219억달러(3.5%) 증가에 기인한다.

순 대여금은 비연방 기관의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혹은 특정 활동이나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부 및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로 구성된다. 2023회계연도 중에 2,610억달러(18.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대법원의 바이든 대 네브래스카(Biden v. Nebraska) 판결에 따라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 부채 구제 취소에 따른 교육부의 연방 직접 학자금 대출의 2,143억달러 증가에 기인한다.

순 유형고정자산은 주로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운영에 핵심이 되는 건물, 구조물, 시설, 장비, 내부사용 소프트웨어 및 일반 용도의 토지로 구성되며, 국방부의 유형고정 자산이 상기 순 유형고정자산 중 약 67.4%를 차지한다. 2023회계연도 중에 375억 달러(3.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개 취득원가 변경, 감가상각 소급 조정, 전년도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이전 등으로 인한 국방부의 유형고정자산 과소 계상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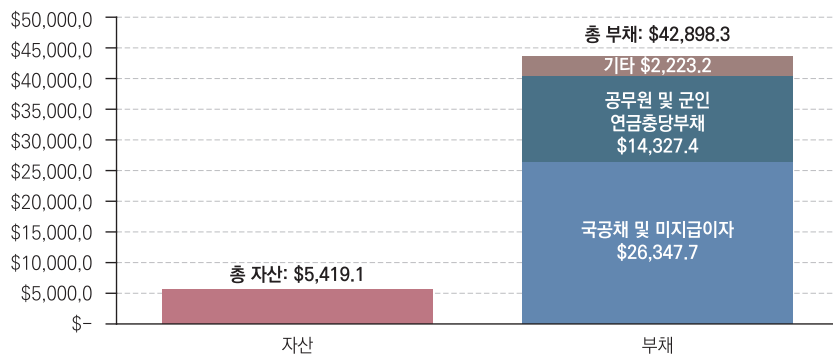
2) 일치하지 않는 거래 및 잔액(unmatched transactions & balances)은 주로 조정되지 않은 정부 간 차이로 인해 발생된 순자산 변동의 균형을 맞추는 데 이용되는 조정사항이다.

3) 세계은행(TH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country/united-states>, 검색일자: 2024. 3. 11.

부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공채 및 미지급이자⁴⁾는 정부 적자해결을 위한 차입으로 발생하며, 전년 대비 2조달러(8.3%)가 증가하여 26조 3천억달러였다. 또 다른 주요 항목은 연방 직원 및 재향군인 미지급연금급여(즉 군인과 공무원을 위한 정부연금 및 기타 복지제도)이며, 2023회계연도 중에 1조 5천억달러(11.8%)가 증가한 약 14조 3천억달러였다. 총 금액은 재직 및 퇴직 공무원을 위한 미지급연금급여(benefits payable) 3조 3천억달러와 군인 및 재향군인을 위한 11조 1천억달러로 구성된다.

그림 1 2023회계연도 미국 연방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십억달러)



출처: 미국 재무부,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3*(미국 연방 재무보고서), 2023.

2) 수익 및 비용

미국 정부는 순원가로부터 국세 및 국세외수익을 차감 및 일부 조정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최종 결과인 '순운영원가(net operating cost)⁴⁾'를 산출한다. 2023회계연도의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약 8천억달러(18.1%) 감소한 3조 4천억달러 적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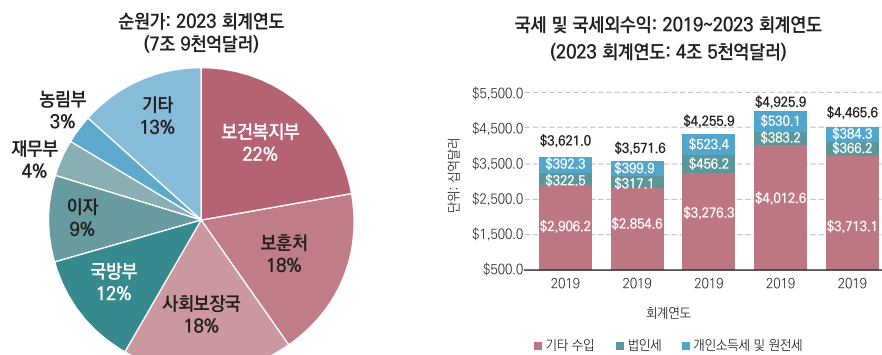
재정운영순원가 감소의 원인은 지난 회계연도 보고실체의 순원가가 1조 2천억달러(13.3%) 크게 감소하고 국세 및 국세외수익이 약 5천억달러(9.3%) 감소했기 때

4) 순운영원가 = 순원가 - 국세 및 국세외수익

문이다. 순원가의 감소는 ① 보건처, 국방부, 인사관리처와 같이 연방 직원 및 재향군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기수당 산출 시 적용하는 가정의 변경에 기인한 순원가의 감소, ② 재무부의 코로나19 국가 및 지방 재정 회복기금(the Coronavirus State and Local Fiscal Recovery Funds)과 코로나19 관련 환급금 및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s) 관련 생활구호자금 및 선급금 등과 같은 코로나19 구제사업 관련 비용의 감소 및 ③ 대법원의 바이든 대 네브라스카(Biden v. Nebraska) 판결에 따라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 부채 구제를 취소하는 하향 수정 사항에 따른 비용 감소 등에 기인한다.

국세 및 국세외수익의 감소는 대개 개인소득세 및 원천세액의 감소와 이자율 증가에 기인한 연방준비위원회 예금수입의 감소에 기인한다.

그림 2 2023회계연도 미국 순원가 및 2019~2023회계연도 국세 및 국세외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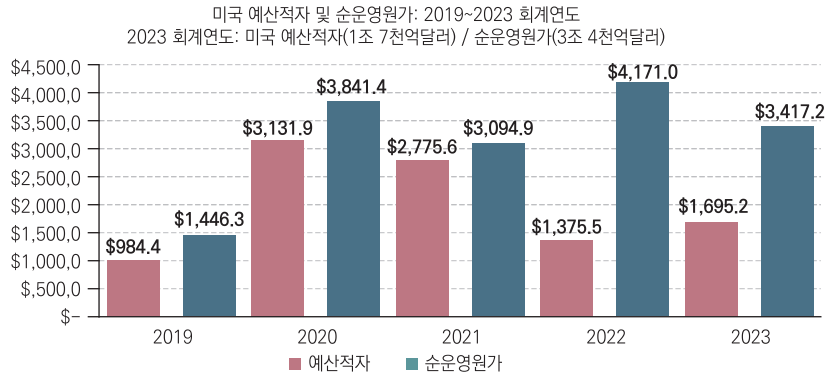
출처: 미국 재무부,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3(미국 연방 재무보고서), 2023.

3) 예산보고서 및 재정보고서 간 비교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는 예산보고서와 재무보고서의 결과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2023회계연도 예산적자(budget deficit)는 전년 대비 약 3천억달러(23.2%)가 증가한 1조 7천억달러이다. 예산적자와 순운영원가 간의 차이인 1조 7천억달러는 주로 순운영원가에는 포함되나 재정적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연방 직원 및 재향군인 관련 연금충당부채 미지급비용(발생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비용)에서 발생하며, 차이에 대한 기타 원인으로는 정부의 미수세금의 감소, 정부가 수취한 선급금 및 이연수입의 증가, 정부가 지급한 선급금 및 선지급금의 감소 등이 있다.

그림 3 2019~2023회계연도 미국 예산적자 및 순운영원가

(단위: 십억달러)



출처: 미국 재무부,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3(미국 연방 재무보고서), 2023.

다.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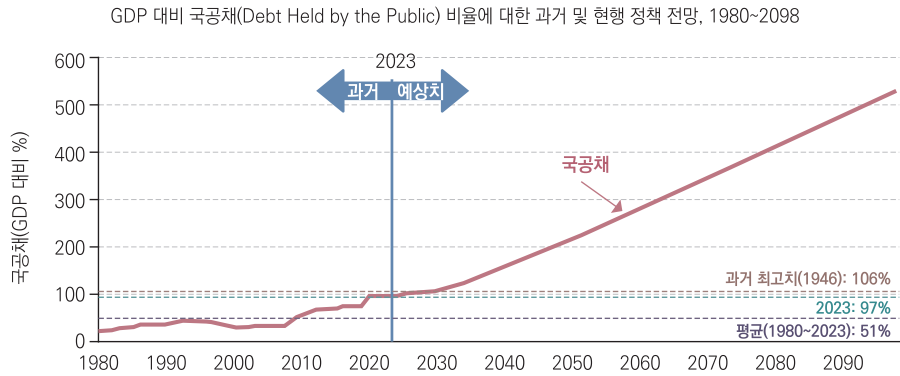
GDP 대비 재무성과(financial results)는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의 역량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이며,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는 GDP 대비 국공채 비율 등을 포함한 여러 데이터를 통해 현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GDP 대비 기본적자(primary deficit)⁵⁾ 비율은 2008년의 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상승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경제 회복 목적의 자금 지원으로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기본적자 비율은 2020년 13.3%에서 2021년 10.8%로 감소하였다. 2023년 GDP 대비 기본적자 비율은 3.8%로 2022년의 3.6%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입의 부분적 감소에 기인한다.

GDP 대비 국공채 비율은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약 97%이며, 현행 정책과 이 보고서의 기반이 된 가정을 전제로 2098년에는 53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공채 비율의 상승은 기본적자가 상당한 수준의 부채를 야기하기 때문이며, GDP 대비 국공채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현행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5) 기본적자는 무이자지출(Total Non-Interest Spending)과 수입(Total Receipts)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림 4 GDP 대비 국공채(Debt Held by the Public) 비율에 대한 과거 및 현행 정책 전망



출처: 미국 재무부,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3*(미국 연방 재무보고서), 2023.



05 제24차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참석 결과



2024년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2024. 3. 7., 프랑스 파리)

가. 출장 개요

목 적: 제24차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참석

출장기간: 2024. 3. 5.(화) ~ 2024. 3. 9.(토)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나. 주요 내용

제24차 OECD 재정관리 재무보고 연례회의가 2024년 3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38개 OECD 회원국과 크로아티아, 대만 등 초청국까지 40개국이 본 회의에 참석하여 재정관리와 재무보고 관련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보고 강화방안, 발생주의회계 도입 및 혁신사례, 위기상황에서의 지출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디지털 및 상호작용적 재정보고(Digital and Interactive Fiscal Reporting; DIFR)와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을 공공부문 재무관리 및 보고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다. 세부 내용

1일차: 세션 1 재정보고 강화(Empowering Fiscal Reporting)

- 재정보고는 국민에게 재정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을 이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므로, 주요 재정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정보를 홍보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및 상호작용적 재정보고(Digital and Interactive Fiscal Reporting; DIFR)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 수행

(발표 1) OECD - 디지털 및 상호작용적 방식을 통한 재정보고 강화(Delphine Moretti, OECD 공공재정예산부서 선임정책분석관)

(발표 2) 아이슬란드 - 대중친화적인 Ríkisreikningur 업데이트(Thorir Olafsson, 아이슬란드 재정관리국 재무보고부문장)

(발표 3) 체코 - 재정보고 웹사이트 “Monitor”(Jana Kaplicka, 체코 재무부 사무관)

(발표 4) 네덜란드 -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 제공(Anna Alberts, 네덜란드 재무부 선임정책관)

1일차: 세션 2 회계기준제정 현황 보고(Report on Standard Setting Activities)

-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Borad), CAG(Consultative Advisory Group), PIC(IPSASB의 공익위원회),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및 EUROSTAT(유럽 공공부문회계기준) 등의 기준 제정 및 활동 현황 보고

(발표 1) Ian Carruther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의장)

(발표 2) Fabienne Colignon(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자문위원회 의장)

(발표 3) Andrew Blazey(OECD 공공관리에산국 부국장)

(발표 4) Bertrand Perrin(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 IFRS 재단)

(발표 5) Peeter Leetmaa(EUROSTAT 통계담당관)

(발표 6) Bertrand Perrin(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 대참)

1일차: 세션 3 발생주의회계 시행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Beyond Basics: New Approaches in Implementing Accrual Accounting)

- 2023년에 수행한 OECD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OECD 회원국 중 90%가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 국제적인 모범사례 공유를 위하여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최근 도입한 사례와 도입 이후 개선된 사례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수행

(발표 1) 이탈리아 - 발생주의 회계제도 시행의 새로운 전략(Fabrizio Mocavini, 이탈리아 재무부 국가회계부서장)

(발표 2) 아일랜드 - 중앙정부 발생주의 회계 개혁(Kevin O'Brien, 아일랜드 공공지출 개혁부 국가회계부서장)

(발표 3) 대한민국 - 국민중심의 재정보고를 위한 마지막 단계: 결산체계개편(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발표 4) 오스트리아 - 10년간의 발생주의 회계 경험과 미래 개혁(Christian Köttl, 오스트리아 연방재무부 부서장)

1일차: 세션 4 분과세션

- 재정관리 및 보고에 관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각 분과 그룹별로 공개 토론

(분과 1)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

(분과 2)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분과 3) 재무제표 통합(Consolidation)

2일차: 세션 5 위기상황에서의 지출 관리(Managing Payments in Emergencies)

- 최근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이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부적절한 지급 및 사기의 위험도 함께 야기됨
- 향후 재해 및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정부의 긴급한 개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전략에는 명확한 기관 책임 구분, 프로세스 및 데이터 관리 개선, 재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국제적인 파트너십 및 협력 제고 등을 포함
- 위기상황에서의 지급 무결성(Payment Integrity)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 수행

(발표 1) 미국 -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금액으로 지불하는 것(Renata Miskell, 미국 재무부 차관보)

(발표 2) 영국 - 위기상황에서의 사기/부적절한 지급 예방 및 적발 방안(Mark Cheeseman, 영국 공공부문사기당국 국장)

2일차: 세션 6

공공부문 재무관리 및 보고에서의 신기술 활용(Using New Technologies in 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 in the Public Sector)

- 각국 정부는 재무 관리 정보 시스템(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MIS)을 활용하여 재무관리 및 보고기능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 재무 관리 및 보고 기능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되고 있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와 인공지능(AI)에 대하여 현황 공유 및 논의

(발표 1) 핀란드 - 재정관리에서의 RPA/AI 활용(Eija Hartikainen, 핀란드 정부 재정 및 인사 서비스 공유기관 과장)

(발표 2) 프랑스 - 공공재정일반총국(DGFiP)의 디지털 혁신(Emiline Fiolet 프랑스 공공 재정총국 디지털문화부 과장)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2024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01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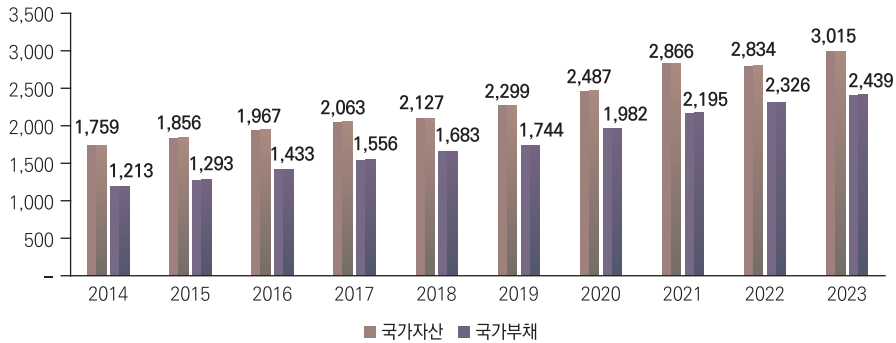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2024년 4월 11일 발표하였다. 국가결산 결과 2023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기금·여유자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80.9조원 증가한 3,014.5조원, 부채는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3.3조원 증가한 2,439.3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75.2조원이다.

2023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3,014.5조원으로 전년 대비 180.9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자산 127.5조원, 유동자산 42.2조원, 일반유형자산 10.6조원, 사회기반시설 0.5조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3년 말 현재 자산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42.3%와 23.9%를 차지하며 다음은 유동자산 18.4%이다.

그림 1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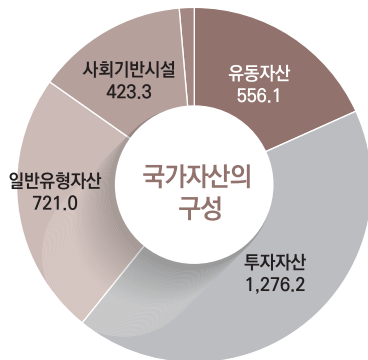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4-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4.

그림 2 국가자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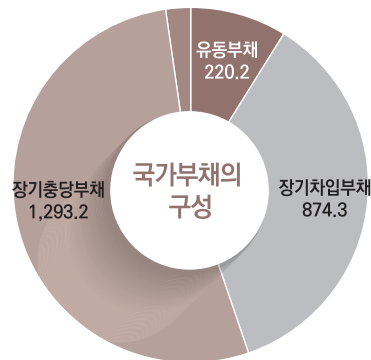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4-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4.

그림 3 국가부채의 구성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4-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4.

2023년 말 현재 자산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367.5조원, 단기금융상품 39.1조원, 현금및현금성자산 35.0조원 등 총 556.1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898.1조원, 장기대여금 198.8조원 등 총 1,276.2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465.8조원, 건물 69.0조원 등 총 721.0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258.1조원, 철도 43.2조원 등 총 423.3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2.5조원 등 총 2.8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0.5조원, 장기미수채권 14.6조원 등 총 35.1조원이다.

2023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2,439.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3.3조원 증가하였다. 주요 요인은 장기차입부채 62.0조원, 장기충당부채 49.9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3년 말 현재 부채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3.0%, 장기차입부채는 35.8%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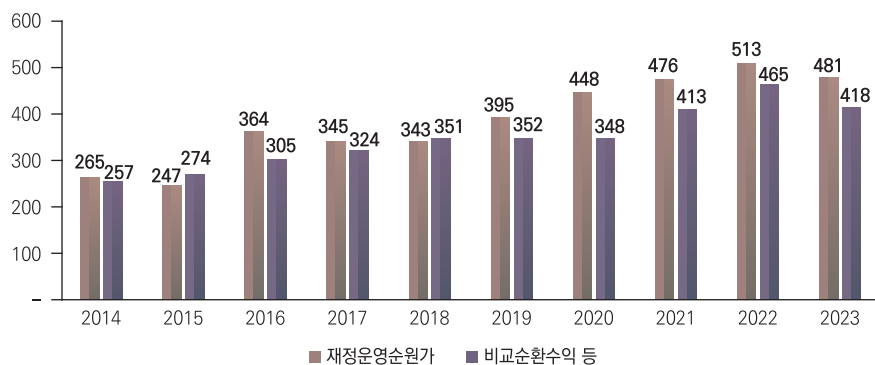
2023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95.3조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94.5조원 등 총 220.2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852.4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8.7조원 등 총 874.3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1,293.2조원은 연금충당부채 1,230.2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53.3조원, 기타 9.7조원(보증충당부채 6.1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51.7조원은 장기미지급자금을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7.6조원, 장기미지급금 14.1조원이다.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481.2조원이며 전년 대비 31.4조원이 감소하였다.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의 비교환수익 등은 417.6조원,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3.5조원이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림 4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4-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4.

02 2024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국가회계교육 사업은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가회계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회계 업무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8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회계 분야의 전문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국가회계 전문교육, 국가회계의 활용,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수강생 중심의 교육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국가회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무원의 회계업무역량 강화 및 국가회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2024년 국가회계교육’ 사업에서 추진하는 5대 중점 실행 과제와 2024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일정에 대해 소개한다.

가. 교육 목표

국가회계교육은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국가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업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그림 1]과 같이 5가지 중점 실행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교육생 니즈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1 2024년도 국가회계교육 중점 실행 과제

비전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운영	
미션	국가회계 전문기관으로서 센터의 전문성 발휘를 통해 공무원 회계 업무역량 강화 및 국가회계 활용 가능성 제고	
2024 년도 중점 실행 과제	1	재무결산 첫걸음 등재 및 활용 신규 결산담당자에게 도움이 되는 재무결산 첫걸음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재 및 활용
	2	국가회계 전문교육 개최 장소 조정 지속적으로 신청 인원이 줄어드는 제주 차수를 서울 차수로 변경하여 운영 예정
	3	국가회계 전문교육 운영 일정 변경 학습 집중력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화~목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과정 운영
	4	국가회계 전문교육 외부강사 추가 섭외 신규 외부 전문 강사 추가 섭외
	5	국가회계 전문교육 홍보 강화 다양한 방식의 국가회계 전문교육 홍보 전개

나. 중점 추진 과제

1) 재무결산 첫걸음 등재 및 활용

신규 결산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무결산 첫걸음’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재무결산 첫걸음은 ① 재무결산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할까? ② 재무결산 주요 일정 ③ 재무결산 참고자료 및 교육 사이트 안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담당자들이 결산 업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파트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비롯한 한국재정정보원의 디브레인 교육, 기획재정부의 재정 교육 등의 내용과 신청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결산 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국가회계 전문교육 개최 장소 조정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각 지역별 주요 거점 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세종)에서 집합교육을 개최하고, 각 과정별 1개 차수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하여 들 수 있는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참석자 추세는 지방에서 이동하기에 교통이 편한 서울 과정에는 신청자가 몰리고, 비교적 교통이 불편한 제주, 광주, 대구 지역의 신청자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개최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나, 실제 참석자들은 제주 외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전체적인 참석자들의 편이를 위하여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과정을 제외하고 서울 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3) 국가회계 전문교육 운영 일정 변경

일반적으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국가회계 실무과정은 금요일에 진행되었다. 해당 일정은 참석자들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업무를 마무리하고 수요일~금요일에 교육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본인 지역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듣는 참석자들의 경우, 금요일에 대중교통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나 개인 사정으로 조퇴를 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지방에서 서울 개최 과정을 듣는 교육생들의 귀가 편이를 위하여 일부 과정을 화요일~목요일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운영 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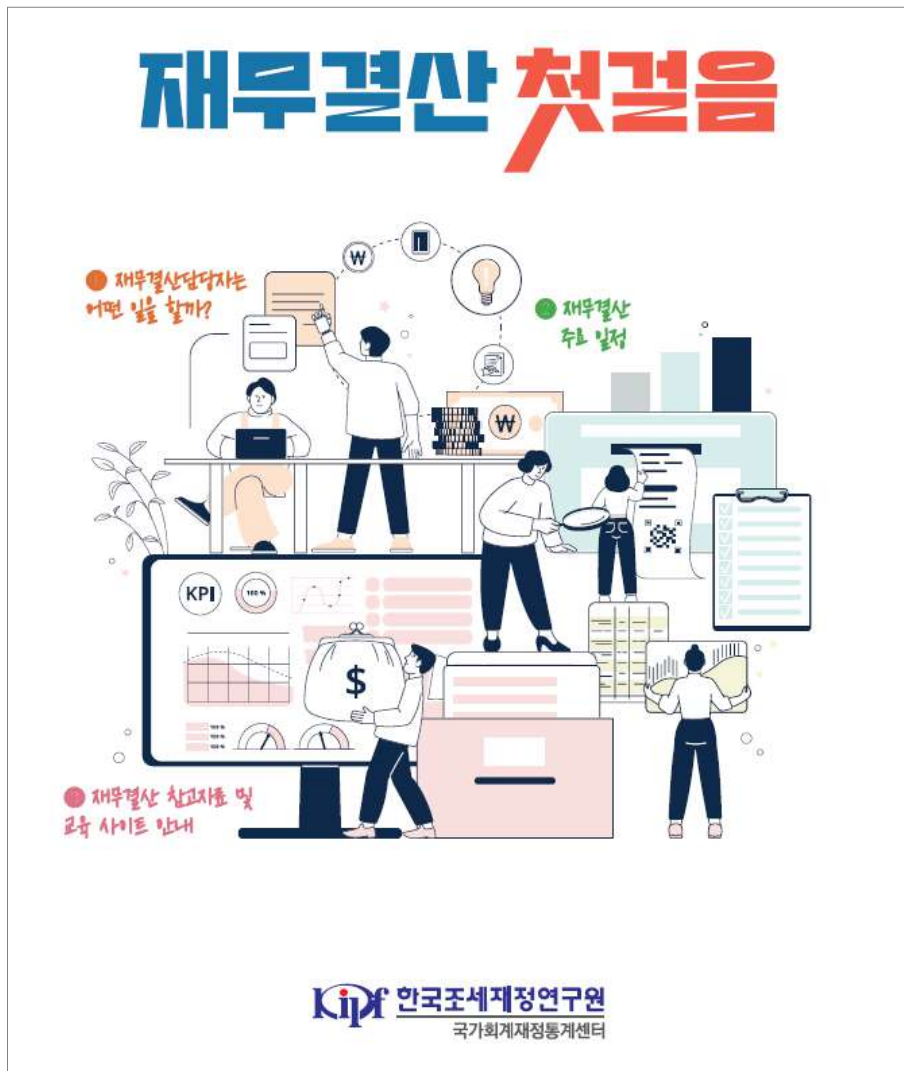
4) 국가회계 전문교육 외부 강사 추가 섭외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외부 강사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가 처음 교육 사업을 시작한 2018년의 경우 총 4명의 외부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강사 후보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현재 외부강사는 총 8명으로 두 배 이상 강사 후보군이 확보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교재 개발 및 강의를 진행해왔고, 매 과정마다 강사평가를 진행하여 강사의 배치 및 선발에 활용하였다. 2024년은 신규 강사가 1명 추가되어 더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5) 국가회계 전문교육 홍보 강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국가회계 교육 사업을 진행한 지도 5년이 되었다. 전문적인 강사와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교육 운영으로 다행히 교육 만족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아직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모르는 업무 담당자나 국가 공무원들이 많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교육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는 기존에 진행하던 홍보방법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림 2 재무결산 첫걸음 URL: https://www.kipf.re.kr/edu/finance_introduce.do



다. 2024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

2024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6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에 걸쳐 실시 예정이다. 본 교육은 국가회계에 관심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가회계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2019년도까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하였으나,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체 교육 과정이 진행되었고, 2022년부터는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다양한 교육방식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교육과정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으로 구성된다.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2일간 진행되며, 1일차에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기초 원리와 이해, 재무제표 만들기 실습, 국가회계제도의 이해로 구성된다. 2일차에는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는 국가회계의 기초적인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국가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주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국가회계의 업무유형별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와 실습, 국가재무제표를 통한 국가재정상태의 이해 등 조금 더 실무적인 과정으로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수입·지출 과정과 국유·물품 과정을 구분하여 실시함에 따라 교육생이 담당업무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두 과정 모두 수강이 가능하다.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중앙부처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10월에 총 2회(회당 2일) 실시된다. 본 과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국가재무결산의 이해,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내부거래실무, 결산조정분개와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본격적인 결산에 앞서 미리 상세히 학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설된 1일차 교육 과정으로 국가자산과 부채의 특성 및 이해, 프로그램세입과 프로그램 원가 등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국가회계의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해하기 쉬우므로 국가회계이론 과정을 먼저 수강하고 듣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처에 센터의 강사들이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찾아가는 국가회계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개설되지 않는 시점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국가회계이론기초, 국가회계실무 동영상 교육들도 국가회계 교육포털에서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열려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회계교육포털(<https://www.kipf.re.kr/edu/>)을 방문해 보기 바란다.

표 1 2024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일정(예정)

※ 본 교육은 내부사정에 따라 장소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차수	지역	교육과정	일정(예정)	기간	비고
1차	서울	국가회계이론	6. 18.(화) ~ 6. 19.(수)	2일	
		국가회계실무	6. 20.(목)	1일	
2차	대구	국가회계이론	6. 25.(화) ~ 6. 26.(수)	2일	
		국가회계실무	6. 27.(목)	1일	
3차	서울	국가회계이론	7. 2.(화) ~ 7. 3.(수)	2일	
		국가회계실무	7. 4.(목)	1일	
4차	대전	국가회계이론	7. 16.(화) ~ 7. 17.(수)	2일	
		국가회계실무	7. 18.(목)	1일	국유 · 물품
5차	부산	국가회계이론	7. 23.(화) ~ 7. 24.(수)	2일	
		국가회계실무	7. 25.(목)	1일	
6차	광주	국가회계이론	7. 30.(화) ~ 7. 31.(수)	2일	
		국가회계실무	8. 1.(목)	1일	
7차	서울	국가회계이론	8. 6.(화) ~ 8. 7.(수)	2일	
		국가회계실무	8. 8.(목)	1일	국유 · 물품
8차	세종	국가회계이론	8. 28.(수) ~ 8. 29.(목)	2일	
		국가회계실무	8. 30.(금)	1일	
9차	비대면	국가회계이론	9. 3.(화) ~ 9. 4.(수)	2일	
		국가회계실무	9. 5.(목)	1일	

표 1 의 계속

차수	지역	교육과정	일정(예정)	기간	비고
10차	비대면	국가회계이론	9. 24.(화) ~ 9. 25.(수)	2일	국유 · 물품
		국가회계실무	9. 26.(목)	1일	
11차	세종	재무결산실무	10. 17.(목) ~ 10. 18.(금)	2일	
12차	비대면	재무결산실무	10. 23.(수) ~ 10. 24(목)	2일	
13차	비대면	국가회계의 활용	10. 30.(수)	1일	



국가회계
재지토계





재정통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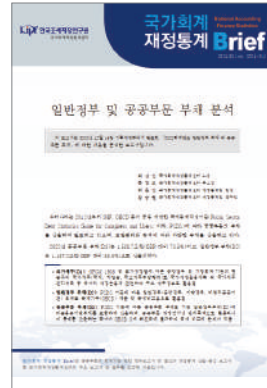
////////////////

-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01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을 주제로 한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2024-01)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Brief는 2023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를 기초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내용에 적자성 국가채무 추세 분석, 국제동향 분석 등 추가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가. 부채의 종류

2022년 정부의 포괄범위에 따른 부채(총부채¹⁾)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	2022년 규모 (GDP 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1,067.4조원 (49.4%)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일반정부 부채 (D2)	1,157.2조원 (53.5%)	D1+비영리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PSDS 발생주의	국제 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588.7조원 (73.5%)	D2+비금융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PSDS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2월 VOL.121,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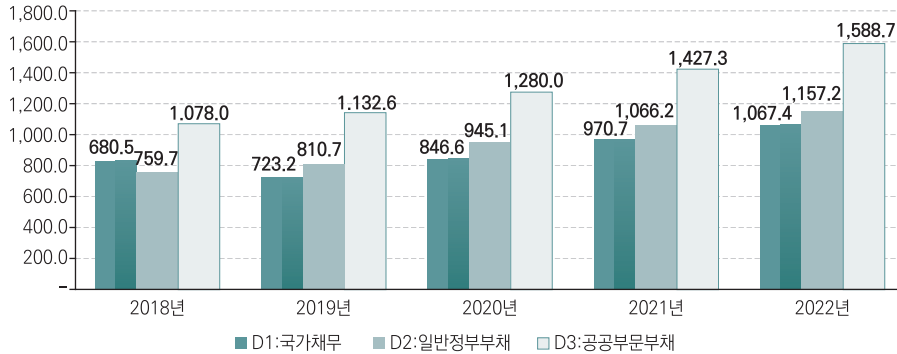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부채 종류별 총부채 금액의 최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D2는 2018년 759.7조원에서 2022년 1,157.2조원으로 증가(연평균 11.1%)하였고, D3는 1,078.0조원에서 1,588.7조원으로 증가함(연평균

1) 총부채(Gross Debt Liabilities)란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채무상품(Debt Instruments)은 채무자가 미래 특정 시점에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채권,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

10.2%).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책대가 2022년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1 부채 종류별 총부채의 5개년 추세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2월 VOL.121, 2024.

나. D1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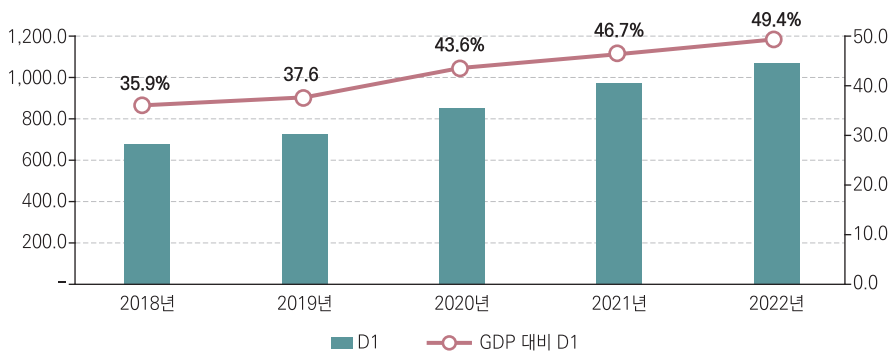
2022년의 D1은 1,067.4조원(GDP 대비 49.4%)으로 전년 대비 96.7조원(GDP 대비 비중 2.7%p)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82.6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1.3조원)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93.8조원)에 주로 기인함

☞ D1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로 크게 증가*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확대 지속으로 2022년까지 그 증가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됨

* 2019년 42.7조(1.7%p), 2020년 123.4조(6.0%p), 2021년 124.1조(3.0%p), 2022년 96.7조(2.7%p) 증가

그림 2 D1의 현황 및 추세 분석

(단위: 조원,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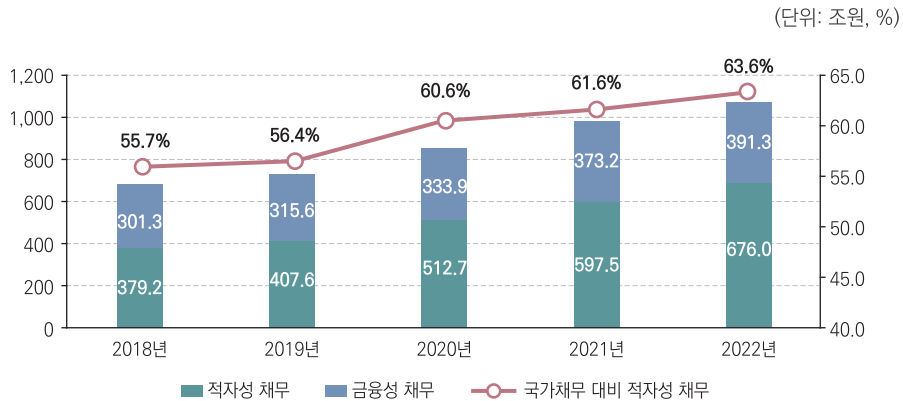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2월 VOL.121, 2024.

☞ D1은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2022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63.3%로 2018년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 적자성: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금융성: 자산매각, 용자금 회수 등 자세 상환이 가능한 채무

그림 3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추세 분석



출처: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검색일자: 2024. 2. 5. ('국가채무 추이'로 조회)

다. D2 분석

1) 증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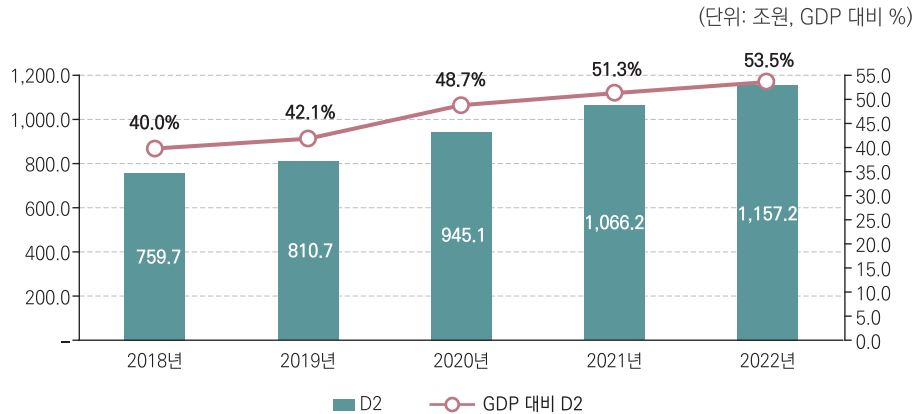
2022년의 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으로 전년 대비 90.9조원(GDP 대비 비중 2.2%p)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앙정부 부채(1,104.2조원)는 전년(1,016.2조원) 대비 88.1조원 증가함. 일반회계 적자보전·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및 공채 등 채무증권이 87.8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 차입금이 1.1조원 감소하였음

지방정부 부채(72.8조원)는 전년(69.9조원) 대비 2.9조원 증가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차입금 증가 등으로 부채가 2.6조원 증가한 반면, 교육자치단체는 차입금 및 민자사업(BTL) 부채 감소로 부채가 0.9조원 감소함

D2는 2018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지출 확장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부채 증가폭은 11.4%p로 크게 증가함

그림 4 D2의 현황 및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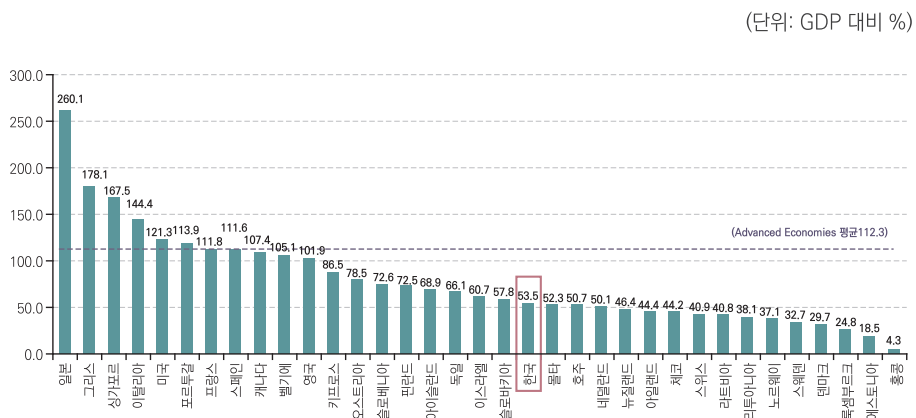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2월 VOL.121, 2024.

2) 국제동향

IMF Fiscal Monitor Advanced Economies(이하 '선진국'이라 함) 자료를 이용해 GDP 대비 D2 비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53.5%)는 선진국 전체 평균(112.3%)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한편 5개년 추세를 살펴보면 선진국 평균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가 2020년(122.9%)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유의적인 관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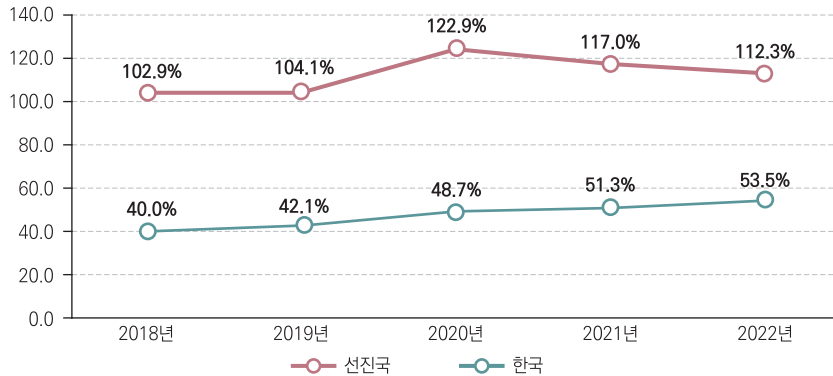
그림 5 일반정부 총부채(D2)의 국제 비교



출처: IMF, *Fiscal Monitor*, 2023. 10., "Table A7. Advanced Economies: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그림 6 일반정부 총부채(D2)의 5개년 추세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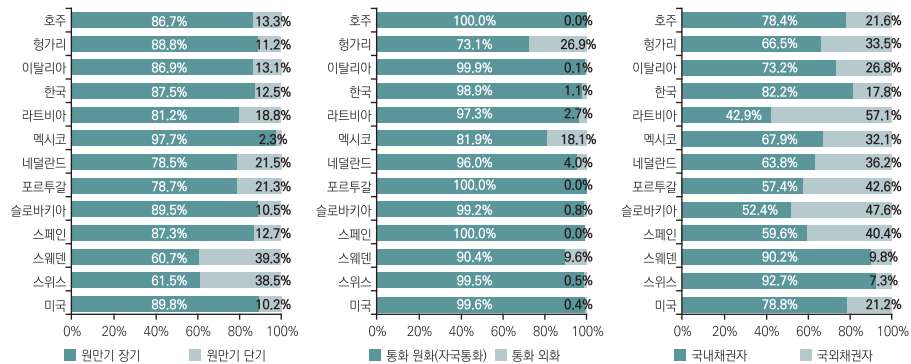


출처: IMF, *Fiscal Monitor*, 2023. 10., "Table A7. Advanced Economies: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부채유형별 추가 분석을 위해 OECD 회원국의 만기별(장기/단기), 통화별(자국/외화), 채권자 거주지별(국내/국외)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장기부채(87.5%), 자국통화(98.9%), 국내채권자 보유(82.2%) 비중이 높아 부채의 질적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7 일반정부부문 부채별(D2) 비교

(단위: %)



출처: OECD.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원만기별) 대부분 장기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장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97.7%인 반면, 단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39.3%임. 단기부채가 많으면,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므로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함

(통화별) 대부분 원화(자국통화) 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원화(자국통화)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100%인 반면, 외화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로 26.9%의 비중을 보임. 외화 부채가 많으면, 환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등 환위험 관리가 필요함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채권자가 보유하는 부채 비중이 더 높은 편이나, 그렇지 않은 국가도 일부 있음. 국내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92.7%이며, 국외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로 57.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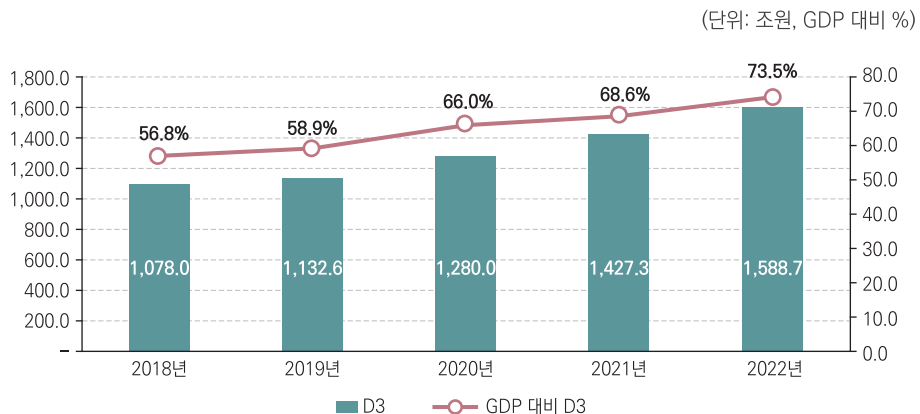
라. D3 분석

1) 증감분석

2022년의 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으로 전년 대비 161.4조원(GDP 대비 비중 4.9%p) 증가함. 공공부문 부채 중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 대비 90.9조원 증가하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77.7조원 증가함.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한전 및 발전회사 46.2조원, 한국가스공사 17.1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6.5조원 등으로 주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에 기인함

D3의 GDP 대비 비율은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8 D3의 현황 및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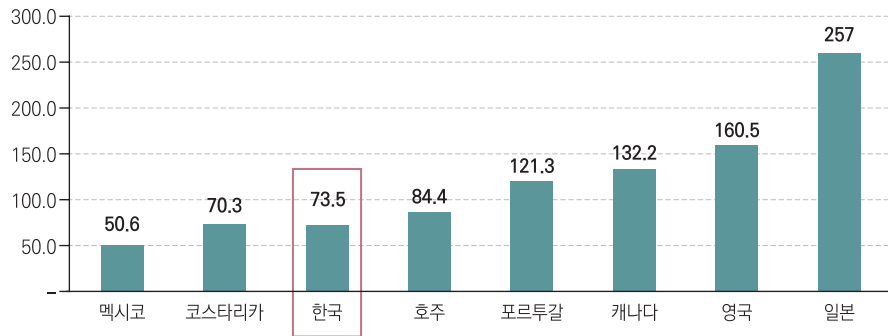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2월 VOL.121, 2024.

2) 국제동향

한국의 D3는 OECD에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8개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임

그림 9 D3의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일정 및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공익법인 관련 시행령 개정안

01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가.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27개 기관(전년 대비 20개 감소)을 2024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대국민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자율성·책임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하였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지정해제) 타 기관에 통·폐합되어 지정실익이 없어진 1개 기관(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혁신·도전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22개 출연연구기관
- (신규지정)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3개 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 (유형변경) 한국도로공사(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기관

표 1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구분	'23년	'24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2	32	-	-	-	-
■ 시장형	13	14	+1	-	-	+1
■ 준시장형	19	18	△1	-	-	△1
② 준정부기관	55	55	-	-	-	-
■ 기금관리형	11	12	+1	-	-	+1
■ 위탁집행형	44	43	△1	-	-	△1
③ 기타공공기관	260	240	△20	+3	△23	-
계	347	327	△20	+3	△23	-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3)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타공공기관
	산림청	한국치산기술협회	기타공공기관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기타공공기관
	환경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해제 (△23)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정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표 1 의 계속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지정 결과
해제 (△23)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정해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유형 변경 (±2)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자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혁신·도전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과기계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2024. 1. 31.



02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일정 및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일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사원총회 등의 승인 의결로 확정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규칙에 따라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말일까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 3월 말까지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준정부기관(공기업 중 사원총회 의결기업 포함)은 확정된 결산서를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승인·확정하여 5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감사원 결산 검사 결과(7월 31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에 제출(8월 20일)하여야 한다.

표 1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일정 요약

결산서 제출	결산서 승인	감사원 제출	감사원 → 기획재정부 송부	국회 제출
2월 말	3월 말	5월 10일	7월 31일	8월 20일

나.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결과

공공기관 회계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 및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2022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4조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2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감사 전 재무제표(이하 '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4조(결산서 제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 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7. 1.〉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84개의 기관은 2023회계연도 사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사전 재무제표의 제출 여부와 함께 주식 작성의 충실성을 검토하였다.

점검 결과 모든 기관이 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며, 주식의 작성 수준도 양호하였다. 교육과 충분한 안내를 통해 지난 해 대비 미제출하거나 부실 기재하는 등 의무위반이 감소하여 사전 재무제표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

(단위: 기관수)

구분		2022 회계연도	2023 회계연도	연결	별도	개별
공기업	시장형	15	13	13	13	—
	전부제출	14	13	13	13	—
	제출위반	1	—	—	—	—
	준시장형	21	19	14	14	5
	전부제출	21	19	14	14	5
준정부	위탁집행형	81	44	9	9	35
	전부제출	75	44	9	9	35
	제출위반	6	—	—	—	—
	기금관리형	9	8	4	4	4
	전부제출	9	8	4	4	4
통합	전부제출	119	84	40	40	44
	제출위반	7	—	—	—	—
합계		126	84	40	40	44

출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내부자료

향후에도 사전 재무제표가 보다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결산 교육 및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관의 회계책임성 강화, 감사시간 확보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3 2023년 세제개편 후속 공익법인 관련 시행령 개정안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3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024. 1. 23.)하였으며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한 수정 후 2월 27일 국무회의 통과, 2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등을 개정하였다.

(1)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지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의무지출액의 기초가 되는 출연재산가액 산정기준 중 상장주식의 가액 평가기준이 기존에는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으로 하였는데, 5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은 최근 5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지출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실적만으로 평가하였는데,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 비율 상당액 공익 목적사업 지출 의무 • 의무지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재산 가액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3%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 지출실적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연도 사용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합리화 • (좌동) •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다만, 5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 ①, ② 중 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②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4.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공제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화사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예외 대상 추가 • (좌동) - 조특법 §74 중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p>* [조특법 §74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법인·산학협력단 등 (2)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병원 등 (7)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8)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장학금 비중이 80% 이상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9) 공무원연금공단 등 [조특법 §74④]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4.



세미나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학회 공동세미나 결과 보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 공동세미나 결과 보고



가. 개요

- 주 제: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 일 시: 2024. 3. 13. (수), 10:00 ~ 12:00
- 장 소: 서울 FKI 타워 3층 다이아몬드홀
- 주 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3일(수) 서울 FKI 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학회 공동세미나(이하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세미나의 주제는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로 기후 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발생주의 회계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해당 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치·경제 역사 및 회계학 분야의 전문가이자 *Public Net Worth - Accounting, Government, Democracy*의 저자인 제이컵 솔(Jacob Soll)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한중수 한국회계학회 회장과 최현덕 한국회계연구원 연구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제이컵 솔(Jacob Soll) 교수의 강연과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이컵 솔(Jacob Soll) 교수는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회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재정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홍순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현금주의(단식부기)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연금 및 보험 등 국가재정 관리에 있어 순자산 중점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기반의 통합된 재정상태표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자산의 가치 반영시점이나 평가시기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자산이라는 도구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잘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결산정보는 차년도 5월에 제공되는 등 발생주의 정보 제공의 낮은 적시성을 지적하였으며, 국가회계, 민간회계 및 비영리 회계가 통합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회계청 설립을 통한 모니터링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회계가 재정관리에 있어 중요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며, 정부활동의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정부회계기준의 개혁만으로 정부활동의 경제적 의미를 모두 표현하기는 어려우며, 포괄적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개념¹⁾의 경우 미래에 대한 많은 가정이 필요하나 정부자산의 경우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산가격 추정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1) 기존 자산 및 부채에 미래 예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현재가치인 암묵적 자산 및 부채를 더하여 국가의 현재와 장기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기록, 출처: Ian Ball, Willem Buiter, John Crompton, Dag Detter, and Jacob Soll,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이한상·문해원, (사)한국회계기준원, 2024, p. 130

공동세미나 전체 영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Youtube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문) <https://www.youtube.com/watch?v=6kInE14VpP4>

(영문) <https://www.youtube.com/watch?v=OHLNB5GPcRE>

나. 주요 내용

[토론]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생주의 회계 활용에 대한 논의

발제자 Jacob Soll,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

● 회계 및 재정상태표 활용의 중요성

- (배경) 현재 주요국은 부채가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본 저서(*Public net worth - Accounting, Government, Democracy*)의 집필을 시작함
- (재정상태표 활용 중요성) 국가의 흥망성쇠 요소로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를 활용한 거버넌스를 들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제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정부에서 정책 수립에서 종료까지 비용 발생 등의 발생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면,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음
- (공공재정의 투명성 증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정책적인 결정이 재정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기후 변화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재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특성과 교육, 연금 및 보건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정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자산·부채 관리) 강대국 또한 팬데믹이나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높은 부채로 인한 재정위기는 연쇄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지므로 정부는 자산과 부채 관리를 위한 기금에 투자해야 함
- (포괄적 재정상태표) 한국은 정부회계를 잘 해오고 있으나, 모든 회계를 통합하지 않아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뉴질랜드처럼 정부 전반의 포괄적 재정상태표를 만들면 엄청난 힘(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함

● 역사로 살펴본 발생주의 회계 도입 중요성

- (스페인) 16~17세기에 스페인은 강대국으로 합스부르크 지역, 네덜란드, 미주를 통치했으나, 제국의 유지비와 국방비 등의 많은 비용으로 부채율이 증가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해 포괄적인 재정상태표를 만들어 냈지만, 회계를 낮게 평가하여 부채 관리에 실패했고 파산하게 되었음
- (프랑스) 은행가인 몽타뉴(Montagne)는 현대정부의 위기 해결을 위해 복식부기 회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당시 왕가는 완전히 부패했고, 귀족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금융위기 해결에 실패함(1720~1724년)
- (영국) 영국은 회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으며, 모든 경영진, 의회, 대중들도 재정상태표를 이해하고 논의하여 부채 탕감을 유도함
- (회계의 중요성) 국가회계기준 등의 회계의 활용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회계는 종교, 문화 및 정치적인 일부가 되어야 함

● 위기 극복을 위한 회계의 중요성

- (그리스 부채 위기) 그리스 의회는 개혁법을 통과시켜 높은 수준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음. 이와 같은 발생주의 회계 기반의 재정상태표 작성을 통해 부채 위기를 해결했으며, 정부 내에서도 회계부처를 신설함
- (한국) 발생주의 회계 기반의 통합적 재정상태표를 통한 자산과 부채 관리를 통해 ESG, 기후변화, 군사위기, 금융위기, 채무 및 연금 문제 등의 위기 극복 및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증진 필요

[토론]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생주의 회계 활용에 대한 논의

토론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 (발생주의 효용성) 재정적자가 되면 부채가 발생한다는 현금주의(단식부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순자산 중점의 발생주의 회계 정보 활용 필요

- 작년 세수결손의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주의 회계에 기반한 순자산으로 표현되었다면 정부 재정상태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었을 것임
- 정부가 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상태 변화를 발생주의 회계로 보여주었다면 개혁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연금과 보건지출을 평가하여 포괄적인 재정상태표를 만든다면 현재 재정상태와 향후 재정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 당장의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한 분식회계로 생각되므로 정부가 직접 채권 발행을 통해 공공자산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좌장)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통합적 재정상태표에는 현재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 범위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며, 현재 국가재무제표에는 국민·사학연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도 복식부기로 기록하지 않으므로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복식부기 기록이 필요함

토론 2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발생주의 정보 중요성) 국가 부채 및 국가 재무정보 등의 발생주의 정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연구를 통해 검증되는 등 발생주의 정보는 중요함
 - 국가부채가 GDP 대비 1%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0.04 등급이 하락하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1%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은 0.15 등급 하락함
- (발생주의 정보 활용) 발생주의 정보 활용을 위해 국가결산체계를 보고책임에서 정보제공으로 변경하고, 발생주의 회계 관련 기준위원회 폐지 또한 문제 제기가 필요함
 - 전년도 국가결산정보는 차년도 5월에 제공되므로 낮은 적시성으로 정보 활용이 어려움
 - 국가회계제도 심의위, 지방회계제도 심의위,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가 폐지되어 회계 분야의 민주주의가 후퇴되었으며,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필요함
- (독립적 회계청 설립) 발생주의가 민주주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회계, 민간회계 및 비영리회계가 통합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회계청 설립이 필요함

- 2022년 우리나라 순자산은 약 500조원 정도 되나, 대부분은 도로나 토지로 구성됨. 현재 IPSAS는 IFRS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 문제 제기가 필요함

토론 3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회계가 재정관리에 있어 중요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님
 - 공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잘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공기업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담보하는 양질의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빠른 시기에 매각하는 사례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정부활동의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순자산 중점의 정부회계기준의 개혁만으로 정부활동의 경제적 의미를 모두 표현하기는 어려움
 - 정부투자의 경우 자산을 형성하여 순자산의 증가로 이어지나, 정부소비의 경우 순자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정부의 R&D 지출의 경우 순자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나, 국가의 과학기술 연구역량 증진을 유도하여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포괄적 재정상태표 개념의 경우, 미래에 대한 많은 가정이 필요하나, 이를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공공부문은 정부자산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토론 4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 순자산이라는 도구는 유용하나 악용될 여지가 있어 잘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
 - 재정 관련 지표로 순자산은 유용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정부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수 확충도 필요하나, 비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를 통한 국가자산 재원 형성 과정에서 순자산의 도구 활용도 유용할 수 있음
 - 순자산을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산평가가 필요한데, 자산의 가치를 책정할 때 가치 반영시점이나 평가시기 등에 따라 자산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SOC나 부동산 가치의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그러므로 순자산이라는 도구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 오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잘 사용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활용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1인당 자료로 변경하여 통계 제시 필요
 - 저출산, 고령화 관련한 많은 고민이 존재하며, 인구에 대한 논의가 많음.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편임
 - 여러 통계수치가 1인당으로 계산하면 다른 결과가 제시되므로 1인당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법정 의무지출 증가를 순자산 접근법으로 고려 필요
 - 의무지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단년 지출과 매해 발생하는 의무지출을 구별하여 재정지출에 반영하면 이로 인한 부채 규모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음
 - 입법 시에도 의무지출이 국가자산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는 보고서 발간이 필요함
 - 정부의 의무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순자산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참고

행사 주요 사진



국가회계
재지토계





오피니언

////////////////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개화(開花)
정도진(중앙대학교 교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개화(開花)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총선일인 10일을 하루 지나 예상보다 악화된 결산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이러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는 낯설 수도 있지만 국가채무 등에 대한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한다. 그럼에도 2010년 설립 이래 14년이 지났지만 센터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도 제고는 아직도 남아 있는 주된 과제이다. 물론 이 과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센터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재정상태표의 분류체계를 분석에 유용하되 간소화하고, 재정운영표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질별로 개편하며, 무엇보다도 현금흐름표의 신규 도입 등

은 센터가 지향하는 국민중심의 국가결산보고서로 한 발 더 다가설 것이다. 센터는 작년 10월에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2025 회계연도에 새로운 국가결산보고서를 내놓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숫자의 완결성을 지나치게 지향하다 목표로 하는 2025 회계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번에는 새롭게 개편된 국가결산보고서만 공개하지 말고, 그 결산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실제 숫자들을 가지고 국가재정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나 실행방안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가령, 신(新)국가결산보고서를 예산정보와 연계하는 지표나 신(新)국가결산보고서를 이용한 국가부채나 채무의 관리방안을 연구·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¹⁾

FASAB, GASB, FRAB, AASB, PSAB²⁾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국가 또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독립된 회계기준제정기구이다.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는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두고 독립성을 보완해 왔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도 2022년 이후 폐지됐다. 회계기준은 있지만 독립된 제정기구가 모두 폐지된 2022년 9월 21일은 ‘국가회계 수치의 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단편적 의사결정을 한 정부 당국을 지탄하기보다 이를 초래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먼저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탄식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네트워크’로서 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3월 13일 센터가 한국회계학회 및 한국회계연구원과 함께 저명한 제이컵 슐 교수를 초청해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한 노력이 그 일례라 할 수 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국정부회계학회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과 함께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국내외 연구자와 실무전문가 및 정책·행정이 간 소통과 네

1) 미국 FASAB(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도 ‘Budgetary Information’과 ‘Commitments’라는 유사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2) FASAB(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GASB(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RAB(Financial Reporting Advisory Board), AASB(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PSAB(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

트위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센터의 노력과 성과가 국가회계제정기구의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Climate-Related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하면 민간부문의 회계주제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위 주제의 정식 명칭은 “Statements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hat May Be Relevant to Climate-Related Financial Reporting”으로 미국 FASAB(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 관련 발생한 사건의 영향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보고하기 위한 연방회계기준의 연구로서, 미국만의 연구주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뤄야 할 주제이다. 이처럼 센터는 미래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 미국 FASAB는 ‘무형자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K-Culture로 위상이 높아진 우리나라야말로 국가자산으로서 무형자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향후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국가결산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결산보고서의 활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의 개념체계에 발목 잡혀 아무도 보지 않는 숫자판으로 만들지 말고, 명칭이 ‘국가결산추정보고서’가 되든 또 다른 무엇이 되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보고서를 작성·공유해야 한다. 이제 벚꽃도 저물고 온화한 봄날이 시작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국가회계의 꽃이 되어 국민의 봄날이 활짝 개화하는 데 공헌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 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